

## 10. 청백리(淸白吏)의 말채찍<sup>14)</sup>

### 전설적(傳說的) 인물 이약동(李約東)

옛날 사또가 정사를 보던 제주 동헌(東軒) 문루에는 말채찍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쓰기에 편하도록 걸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 도입하는 목사(牧使)나 관리들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관리들에게 보일 계명(誡命)이었다고 할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고 치위버리자고 주장할 사람도 없었다. 그 채찍은 가죽이었지만 기둥에 걸린 채 오랜 시일이 흐르고 아래

---

14) 『한라일보』(삼각봉), 1990. 02. 22 (목), 논설위원.

고 삭아서 볼품없이 되었다.

도민들은 그대로 없애버리기가 서운하였다. 의는 끝에 그 기둥에다 화공으로 하여금 다시 말채찍을 그려 놓게 하였다. 그리하여 말채찍은 더욱 오래 남아 제주에 도입하는 모든 관리들에게 청백리(淸白吏)의 교훈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이 전설적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노촌 이약동(老村 李約東)이다. 『소대기년(昭代紀年)』을 비롯하여 여러 문집에는 그의 티 없이 맑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약동(李約東)이 제주목사로 도입한 것은 1470년(성종 1) 8월이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그의 청빈(淸貧) 사상은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가 없었다. 목사로 있는 동안 그는 도민의 괴로움을 더는 데 노력했다. 관리들의 부정이나 횡포를 철저히 막고 도민에게 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세공(歲貢)도 조정에 건의하여 대폭 감면을 받았다. 세공 품목이 아닌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민간으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하였다.

3읍 수령들은 자주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마다 큰 여막을 짓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약동은 다만 사냥만은 허락하였으나 여막을 짓고 잔치를 베푸는 일은 없도록 엄중히 훈계하였다.

그가 도입할 때까지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는 매해 봄과 가을 백록담에서 거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기상이 나빠지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묘단(廟壇)을 제주성에서 가까운 소산오름[제주시 아라동 산천단(山川壇)]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때부터 산천제는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도민들은 고행의 오랜 명예를 비로소 벗게 되었다. 이것이 산천단이 생겨난 유래라고 하겠다.

그는 재임 3년, 목사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1473년(성종 4) 8월 제주를 떠났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제주에서 지급받은 모든 물건을 고스란히 관부에 반납하였다. 들어올 때 가지고 온 행낭 그대로였다. 여느 목사들이 우황을 비롯한 많은 약재와 토산물을 잔뜩 싣고 떠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었다.

### 청빈(淸貧) 너무나 유명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말채찍 하나를 들고 동헌 문을 나서던 그는 생각난 듯이 돌아섰다. 들고 있던 말채찍마저 문루 기둥에 걸어 놓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만들어준 채찍도 제주의 물건이라는 것이었다. 도민들은 그 말채찍을 그대로 기둥에 걸어 놓고 보존시켰던 것이다.

제주를 떠난 다음에도 이약동은 남달리 제주도를 아낀 사람이었다. 목사를 지내면서 제주도민의 생활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목사에서 이임한 그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와 경상도수군절도사(慶尙道水軍節度使)를 거친 다음 1477년(성종 8)에는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직접 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그가 제주도를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진언하고 있는 사실이 성종실록(成宗實錄)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수령들이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타는 일이 없도록 국마(國馬)를 따로 두어 활용하게 하는 마정(馬政)

에 관한 건의를 하였다. 다음에는 내수사(內需司)의 관리들이 제주도에 들어가 여러 가지 농간을 부려 민간의 재물을 울궈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였다. 또 제주도에는 왜선(倭船)이 들어와 묵는 일이 있는데 이때 목사나 관관들이 통역이 가능하도록 왜통사(倭通事)를 두는 문제도 건의하였다. 그의 건의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그 뒤로 그는 호조참판(戶曹參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조참판(吏曹參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 요직을 거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그는 1451년 대과에 급제한 문종(文宗) 때로부터 성종(成宗) 연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이나 관직에 있었다. 그동안 그는 다섯 차례의 지방수령을 지냈고 여러 현직(顯職)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자리를 뜰 때는 언제나 빈 몸이었다.

그의 청빈은 너무나 유명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는 원로대신들의 천거로 영예의 청백리(清白吏)에 뽑혔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제주목사를 지낸 사람은 2백 90여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는 청백하고 선정을 베푼 목사도 적지 않았다. 이약동은 그런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가 간 뒤 제주도에는 그를 기리는 여러 유적이 있었다. 산천단(山川壇)에는 그가 마련한 산신 제단이 있었고, 그 뒤에 도민이 세운 기적비(紀蹟碑)가 있었다. 오현단(五賢壇)에는 그를 배향한 영혜사(永惠祠)도 세워졌다.

1669년(현종 10)에 창건된 영혜사는 이약동(李約東) 목사를 필두로 이괴(李繪) 목사, 이형상(李衡祥) 목사, 김정(金倣) 목사와 함께 유학자 김진용(金晉鎔)이 배향되었다. 그러나 1871년(고종 8) 전국에서 서원 철폐

조(撤廢詔)가 내리면서 헐리고 말았다.

## 모든 유적(遺蹟) 소멸돼

산천단의 제단과 기적비도 그 뒤 모두 소멸돼 버렸다. 지금 산천단에 있는 동강난 빗돌 2기(基)는 필자가 10년 전에 발견하여 다시 세우게 한 것이다. 이제 도내에서는 그밖에 어디에서도 그의 유적을 찾아볼 수 없다.

벌써 오래전부터 도내 일각에서는 그의 사적(史蹟)을 재현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그것이 최근에야 드디어 추진체(推進體)로 발족을 보았다. 산천단(山川壇) 복원 및 이약동(李約東)목사 기적비(紀蹟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평효(玄平孝))가 그것이다. 추진위가 서두는 사업을 보면 우선 산천단에 한라산신제단을 복원하고 그 옆에 이약동 목사의 기적비를 세우고 그 일대를 정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산천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도민들은 6백년 묵은 곰솔이 몇 그루 있고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장이다.

여기에 원래 산천단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재현시켜 놓으려는 것이 그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 사업이 성취되면 이곳은 한라산신제를 통하여 이 땅에 면면히 이어져 온 5백년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이 될 것이요, 그 역사를 증언하는 기적비가 될 것이다. 당국은 물론, 온 도민이 한 걸 같이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야 할 사업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지사에게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동헌 문루에 오랫동안 걸렸던 그 말채찍을 지금 도청 어디엔가 재현시켜 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도청 앞뜰이라도 좋고, 청사 내 현관이라도 좋다. 어느 한곳에 말채찍상(像)을 만들어 세웠으면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필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부정부패를 경계하는 백번의 훈시나 천장의 구호보다도 더 가슴에 와 닿게 할 것이다.

산천단의 문화유적을 재현하고 이약동(李約東) 목사의 청백상(淸白像)을 기리는 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할 뿐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 보아도 당위성(當爲性)을 지닌 사업이라고 확신한다.